

AUTHOR 오병세

TITLE 개혁주의 교회교육

IN 개혁주의

41호 (9, 1970): 6-9.

개혁신주의 교회교육

—그 윌리와 실천면에서—

오 병 세
 <신학·교역신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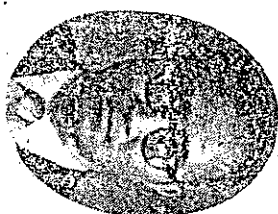
그 윌리와 실천면에서 살펴 보코자 한다.

I 원 리

1. 진리중심

종교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를 찾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나 교육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주님께서서는 땅 위에 계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 하시겠다(요한 16:13)는 말씀대로 진리로서 훈련을 하셨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강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사도행전 20:27)을 전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는 이런 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또한 사말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론 교리훈련을 부탁하였다(딤후 4:1, 16, 6:20, 2:2, 3:16).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에게서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왜 이런 진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하니, 세상은 악한 것이 그 바람이요,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어둠과, 굶은 세상을 빛과 바른 것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개혁신주의는 구교의 잘못을 향의 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램 제이(Sir W. Jam M. Ramsay) 교수는 "기독교는 교우 받은 자의 종교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와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해 주는 좋은 예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삼대요건이 교우와 전도와 침례이었다(마태 4:23, 9:35). 그런데 그 첫째가 교육이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위대하신 명령을 하셨으니 곧 "모든 백성을 제자삼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마태 28:19-20). 예수님의 위대하신 말씀에는 가르침에 강조점이 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깨닫고 시행하는 개혁주의 교회 교육을

교육을 가장하며 잘 속이기도 한다. 죄와 불신앙은 잘 숨는 것이다. 죄를 가리운다. 실교를 할 때 어떤의 품은 수사적으로 말만 잘 늘어놓는다. 자기의 죄는 가리우고 수색이로 자기기가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다. 가장행열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한다.

세상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눅 16:15에 "에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귀한 것이다. 이 귀한 믿음에 거짓으로 가진 것만 합리적으로 할려는가? 믿음은 가진 것만 합리적으로 할려는가?

민음을 확실히 소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 때 제미가 있는 것이다. 참 기독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뽐야 하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 귀한 믿음이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전달되는 권이 있다. 그것은 모성을 통하여 전해진다. 외조모도 모성이요, 어머니도 모성이다. 믿음 전달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이다.

나 사람편에서 볼 때 감화로써 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 주셨고 그를 피홀려 죽게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성령 통하여 믿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어 상치 않게 하여 바로 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감화를 통하여 마르게 하신 것이다. 믿음은 감화를 통하여 나타난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 하시는 원리는 감화의 감화이다. 인격으로 감화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인도할 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감화로 인도하여야 한다.

3. 결 론

디모데로 인한 바울의 감사를 생 각하였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조건이 있었다. 우리도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교역자가 되자.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세를 부리며 산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한 것이다. 우리도 디모데 같이 참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록: 심관석>

면서 진리대로 구별되히 살려 주는 동인대, 교육에서 이 안개를 걷어 주어야 한다. 머리 속에 안개처럼 걷고 머뭇머뭇한 사람 같이 회머하고 몽롱한 머리를 받고 환하게 해주어야 한다. 개혁주의의 교육은 진리로서 세뇌공작하는 것으로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색이지고 밝은 이 문제로 세뇌공작을 하는데 왜 진리로서 세뇌공작을 못할 것인가? 이 진리와 함께 정령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비판정신이 강한 현대인들이 꿈쩍이나 권력이나 무슨 권위 앞에 서기가 아니라 진리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비판정신을 가지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 제시된 진리, 절대적이요, 상대가 아니며, 변치않는 진리만이 사랑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

2. 하나님 중심

우리는 사도 신경의 첫 머리에서 “천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한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중심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끼리의 형제관계를 가질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을 본다. 어떻게 해서 서로 형제와의 형제관계만 잘 가지며, 사람에게 칭찬이나 받을까하는 사람중심의 교육이 되기 쉽다. 이리하여 눈앞에서의 봉사, 입술만의 봉사를 일삼고, 동치고 아웅산의 교육이 되기 쉽다. 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품도 잘

아게신다는 문명한 생각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 오늘날이 안되어도 내일은 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중에 나가기 된다.

오늘의 교회교육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반 교육처럼 인간의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한갓 교양강화에 흐르고 있는 실정 이 아닌가?

3. 가전 중심이다.

근처에 영국 캄부릿지의 데이치 (Edmund Leach)박사는 가정의 사회의 기반인인 것을 의심하며 하였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런 교묘가 가정의 권위가 여기에 있다. 가정은 혈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인류가 존속할 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분재를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성계명에는 먼저 재계가 기년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가정에 보내서서 제5계명의 가르침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육을 말할 때에 이것이 가정에서 시적이 되어 가정 중심으로 이룩되 있다. 가정은 하늘의 모형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곳이다. 사랑은 기계의 기를갈아서 이것으로 기계가 잘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교회 교육은 성경을 따라 가정이 중심이던 교회교육이 되어야 한다. 개혁주의의 교회 교육은 가정교육의 연장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다.

4. 평신도 중심

종교개혁이 기독교에 새로운 전경을 가져 왔다. 그 목적의 하나인 가 민인 제사장론이다. 곧 모든 신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직접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평신도(Faithy)의 새로운 운동의 근거가 되었는에 이 평신도는 그 어원이 신민에서 온 말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교의 강점은 평신도가 스스로 운동하고 교육하는데 있다. 한국교회는 신교사적 이후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된 것은 평신도운동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운동이다. 교회의 구부적인 운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이다.

II 목적

1. 하나님의 영광

한쪽에서는 교육의 지상목적은 眞善人間이라고 한다. 뜻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신 출세하며 개인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받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오늘 인본주의적 인 사조와 소리가 높아지는 때를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정신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2. 증거

크리스찬이 땅 위에 머물어 있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다. 교회교육도 자기 혼자 구원받고 살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알릴 사명을 양육하여야 한다. 초대의

증거자들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 전 생애를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영어의 순교자(Martyr)라는 말은 헬라이 증인(martus)에서 왔다. 이런 신실한 증인, 생철의 증인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회교육의 목적이다.

3. 봉사

교회교육은 봉사를 위한 훈련이다. 봉사는 마음의 자세로서 그 결과 나타낸다. 혹 교육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를 더 잘하도록 명령하는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한다. 면 이것은 착각이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은사를 받은 것은 스스로 기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남을 섬기라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교육을 뜻하는 말은 “하나인 하나님(channak)라는 말은 “양육한다”는 뜻과 함께 “봉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다운 교육은 바치는 면이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 교육은 자신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를 잘하도록 교육을 한다.

III 방법

1. 평생 해야한다.

교회교육은 국민학교 다닐때만 한다면지 학교에 재학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는 것으로 말아야 한다. 후 까끔 주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 교인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교육을 받도록 문서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칼빈선생은 “모든 교리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우

리가 가진 교리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평생 반복이 되어야 한다. 되풀이 하며 가르쳐야 머리에 들어갈 남이 있게 되며 실천을 하게 된다. 향구적인 교육을 하도록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다양성있게 해야 한다.

교회 교육을 받는 대장자들은 개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고였으니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흔히 전체주의 국가와 제게만 국가에서는 다양성 있는 교육이 오베가고 가장 효과있는 것이 된다. 이브라함·링컨이 말한대로 "원칙은 고수하되 실천엔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할만 하다.

3. 최신식이여야 한다.

오늘날은 과학문명의 청년을 길어 올리는 문명의 利器를 잘 쓰고 있다. 그런데 교육에 이런 기구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의 로이며 말하고 전도하던 시대의 것나 로켓트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의 교육 방법에도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인구 증가율은 1초동안에 2명 이상이 된다. 이

것은 죽는 자를 빼고 순전히 보는 사람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 숫자는 10년간에 부산만한 도시가 하나씩 생긴다. 뜻이 된다. 이런 때에 문명의 모든 利器를 다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원하는 교회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든 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적사 명도 주셨으니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윌리엄에서 개혁주의 교회교육은 진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오늘의 교육은 특별히 그 질에 치중하여 하하게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사람을 세 가지 면에서 배우게 된다. 곧 육과 과 청각과 시각이다. 그런데 육적으로 배우는 것은 전체의 3%이고, 청각으로 12%와 시각으로 85%를 배운다고 한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부모나 부인중에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때에 부인중에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며 남게 마련이다. 교육종에 가장 미중을 차지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 앞에서 진실되히 몸으로 모범적인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은 그 초점이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으며,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충실이요, 사람앞에 서가 아니라 하나님앞에 진실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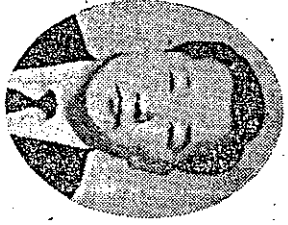
▶ 특 집 ▶ 개혁주의 교회 교육

우리 교단의

교회 교육의 특성

1. 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

우리가 기독교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하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유일학교 교육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종교교육"이라 하면 기독교 영향이 내포되어 있는 서구에서 기독교 교육은 종교 교육이라고 말하

하는 방향으로 볼 때 기독교 정신에서 교육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고,

b. 기독교교육을 교회의 기능가운데 두고 그것에다 "교회적"이란 성질을 본연 것으로 생각하므로 "기독교 교육"이란 교회의 전도를 목적으로 하되 "교회적"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기독교 교육의 몇가지 형태

a. 기독교 가정교육 (Christian Home Education) 이것은 기독교 신자의 가정에서 신앙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자녀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부모는 자녀 교육의 이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유아세례시에 하나님과 교회앞에서 서약 그대로 믿는 부모는 그 자녀를 장성하여 스스로의 의식과 의지로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같이 주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b. 교회학교 교육 (Church School Education)

2. 기독교 교육

1. 기독교 교육의 정의의 二大별
 - a. 기독교 교육을 널리 "교육"이라 하는 것 속에 두고 그것에다가 "기독교적"이란 성질을 보태어서 생각

기독교 가정 자녀들이 강성함에 따라서 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책임을 완수하는데 힘에 지나는 시기에 도달하므로 결국 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을 교회와 사회에서 후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자